

安東權氏 大宗院 典禮委員會 創立總會 開催

안동권씨 대종원 전례위원회 창립회 개최

안동권씨대종원 전례위원회창립총회가 6월 4일 오전 11시 안동시 태화동 안동권씨대종원안동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권정달 총재, 권계동 상임 부총재, 권재주 안동총친회장 과 선임 된 전례위원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권순갑 사무부총장의 사회로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 태사공(太師公)께 망배(望拜), 상유례(相揖禮)가 있었다. 이어 권정달 총재는 참석한 전례위원에게 일일이 선임장(選任狀)을 전달하였다. 권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시조묘소(始祖墓所)와 낭중공단소(郎中公壇所)의 춘추향사(春秋享祀)의 봉행(奉行)을 위한 제례준비는 물론 권문이 대표해서 시행하는 제례도 담당하여



△6월4일, 안동대종원 사무실에서 전례위원회 창립총회를 하고 있다.

적극 참여하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임시의장을 맡은 권계동 상임부총재가 회의를 주재하여 회칙 초안을 심의하여 일부 수정 후 통과시켰다. 이어서 교문 및 자문위원

공직을 쌓아 가고 있다. 그리고 씨는 전에 대종원 회관건립 및 2세 조 창도 낭중공단소 이단

원 추대, 감사선임, 전례위원 역할분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기타 토의 시간에 '제례위원회(祭禮委員會)'를 '전례위원회(典禮委員會)'로 수정하자는 안이 제기 되었다. 이 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다수결(多數決)에 의해 '전례위원회(典禮委員會)'로 결정하고 회를 모두 마쳤다. 이날 참석자 전원에게 권계동 전례위원장이 기증한 태월 한 장과 양말 두 켤레를 선물로 주었다. 총회를 마친 참석자 전원에게 회관 하층에 있는 식당에서 불고기 를 곁들여 점심을 먹으며 화기에(和氣)한 분위기(雰圍氣)속에서 정담(靚談)을 나누다가 해산하였다.

<보도부장 권영건>

태동서원 추연선생 향례봉행



△태동서원 향례 봉행을 보이고 있다.

않겠다."며 전통 유학자의 길을 고집했다. 평생을 은거하며 학문에 전념했으며, 말년에는 후학들이 마련해준 태동서사에서 수많은 문학생들이 길러냈으며, 1988년 타계했을 때, 전통 유림장(儒林葬)으로 치러져 전국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태암산 동쪽이라는 뜻에서 이름을 딴 태동서원은 동양의 도를 지키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태동서원은 전통 사원건축 양식에 따라 교육 장소인 강당과 기숙사인 서재를 갖추고 있다.

위패를 모신 사우(禱宇)를 제외하곤 단청이 없어 소박하고 고고한 선비 정신을 보여준다.

한편 이날 향례에서는 평소 성독

음성과 맹자 강의 내용이 담긴 CD 자료집 "추연선생의 논어성독, 맹자 강의"를 발행·배부했다.

월찬 스님 녹음, 이병혁 부산대학교 교수 보존, 권갑상 태동서원 사무국장이 편집했으며, 추연선생의 논어 성독 2개, 맹자강의 3개의 cd가 담겨있다. 자료는 추연선생의 만년에 녹음한 테이프를 장기보존을 위해 디지털로 변환하였으며, 초기 녹음 상태가 좋지 못하나, 학계와 후학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다. 한 정관으로 배포되며,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자료의 비용은 선생의 손자인 권문사 변호사가 전액 출연하였다.

<槐雲 權海兆(북야공파 36세손)>

권영성부총재 한국로타리총재단 의장당선

권영성 본원 부총재가 지난 5월21일 오전 11시, 서울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국로타리 총재단 정기총회에서 2014-15년도 의장 선출에서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 영광을 차지하였다. 일산(臺山) 권영성(72.영천.추밀공파 양촌공계 34世)의장은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83년 11월 중앙주택건설(주)사장, 영천시 골프협회장, 민통영천시협의회장, 영천지회의원 초대의원, 영천상공회의소

회장, 경북도청유치 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30세부터 오른 문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관여해 영천청년회장, 종친회장을 지냈으며 현 대종원 부총재, (주)진흥 회장으로 크게 활동하며 영천지역에서 중견기업인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78년 7월 영천로타리 클럽에 입회해 총무·재무·회장·총재지역특별대표·국제로타리 3630지구 총재·지구재정위원장 등 30여년 간 사회봉사에 앞장 서가며 지대한



추진에 크게 전력하기도 했다.

씨의 선대계보는 추밀공파 양촌공계 34世이며 9대조(휘 수) 묘소는 대구에 있다. 그리고 작계 선조사업으로 포항에 50여명에 자비로 본인의 호(號)인 일산 농막 즉 '일산간(臺山間)'의 집을 지어 형제 4촌간 사 회봉사에도 앞장 서가며 지대한

공적을 쌓아 가고 있다.

그리고 씨는 전에 대종원 회관건립 및 2세 조 창도 낭중공단소 이단

소를 만들었으며, 시조(始祖)로부터 33世(諱 字別)까지 자연석에 각자(刻字)하여 후손들에게 족보·뿌리교육의 산실을 제공했으며, 더불어 작계 9대조 이하 묘소마다 원석으로 석물을 세워 타문종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도 했다.

한편, 씨는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내부부장관상, 평통의장상, 철도청장상, 국제로타리회장상 등 다수가 있으며, 공(公)과 사(私)를 가리면서, 새 역사 창출에 한 장(章)을 펼쳐가고 있다.

<권오복 편집위원>

강릉대사성공총회 제35회 정기총회



△대사성공총회 제35차 정기총회에서 권명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릉 대사성공총회(회장 권명준)는 지난 6월13일 강릉시 옥천동 '보진당'에서 남녀존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혁훈총무의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원로교문과 먼거리에서 참석한 존친을 소개했으며, 이어서 권명

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환 모 습으로 여러분을 뵈게되어 반가우 며 오는 총회엔 먼거리 올진에서 참 서한 권영호존친과 여자 네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곳 '보진당'은 본 인 18代冊에서 남기신 별장이며, 현 강릉문화재로서 여기에서 정기총회 를 개최하게 된것을 매우 뜻있게 생

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권혁갈대성회장은 '대성회'를 소개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회원 배가 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권우석 前회장은 보학강

의로 임향조 현령공부터 대과에 급제한 분들에게 대해서 설명했다. 권혁 훈총무가 보진당 내 새로 화상실을 설치했다고 보고했으며 회의를 마치고 오찬 후 함께 강릉단오제를 관람했다.

<권현주 주무>

동정공파임동지곡문중 시·아조묘소 참배



동정공파임동지곡문중(회장 권영환)은 관광차편으로 70여명이 지난 5월25일 오전 10시30분 안동 시조묘소에서 주·과·포를 진설하고 영환회

장의 헌작으로 함께 참배했으며 이어 하산해 낭중공 단소에서 회장이 헌작하면서 참배해 시·아조묘의 음 덕을 기리었다. <권혁세 기자>

창수공 묘역 고양유림 순례교육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성석동 감내 선영에 2013년 5월 6일 10시 정각 고양유림 고양향교 전교 이세준(高陽鄉校 典校 李世濬) 전교 이영찬(典校 李英贊)의 15명이 9시 고양유림포관(高陽儒林會館)을 출발하여 9시 50분경 도착하여 21세 별의 묘소 위 황용산 산신(山神)에게 산신제(山神祭)를 올리고 석주공의 양부 이신 별(擊) 선조 성균관대학사 별자 선조의 설명을 시작으로 다음 계 하인 석주공(22세) 석주공 필의 양력과 경륜을 설명하고 남서쪽에 계신 창수공 묘소 참배와 설명을 상세하게 하였다. "오늘 문중에서는 원로이신 권병홍응이 참석하였고 방손인 권정택 기보회장이 모든 자료를 만들어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배부하여 충분한 기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다음순서는 19세 창수공(倉守公) 덕(德)의 묘소를 찾았다. 공은 성품이 순결(純潔)하고 소시부터 호학다문(好學多聞) 하였으나 선대에서 내린 물부과(勿飪科擧)의 유명을 지게 백씨 결성공(結城公)과 함께 과장(科場)에 나가

지 않았다. 음사(蔭仕)로 나가 군사 감부감(軍實監副監)을 거쳐 통훈대부(通訓大夫) 광흥창수(廣興倉守)에 이르렀다. 中宗13年 1518년 10월 8일자 실록에 상의원별과(尙衣院別坐)로 나오고 中宗 20年 1525년 10월 16일자에는 세자궁(世子宮)에 있는 것으로 나온다. 中宗34年 1539년 정월 18일에 졸했다. 유집(遺集)을 남겼으나 임진병자(壬辰丙子)의 양란(兩亂)으로 실전되었다. 뒤에 자손이 귀히 뵈에 따라 가산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추진되었다. 20세 승지공承旨公 기(基)는 좌승지, 형조참의(刑曹參議)와 경주부윤(慶州府尹) 의망 되시고 예문관제학(禮文館提學)으로 마지막 관직탐부하여 충만한 기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다음순서는 19세 창수공(倉守公) 덕(德)의 묘소를 찾았다. 공은 성품이 순결(純潔)하고 소시부터 호학다문(好學多聞) 하였으나 선대에서 내린 물부과(勿飪科擧)의 유명을 지게 백씨 결성공(結城公)과 함께 과장(科場)에 나가



△편정택씨가 고양시 유림의 창수공 묘역 답사 교육을 하고 있다.

에 나섰다. 승무원 교감을 겸한 종부시 종부시와 장학원의 겸정 선조 1년 1568년 우통례와 군사감 좌통례 등으로 머물며 선조 3년 1570년 종부시 정으로 춘추관을 겸하여 명종실록(明宗實錄)을 편찬하였다. 후에 嘉善大夫 禮曹參判 겸 예문관제학(禮文館提學) 세자좌부빈객(世子左副賓客)으로 문집을 2권을 편집하였다. 21세 별(擊)은 성균관(成均館) 태학사(太學使) 이외에는 기록이 실전되어 알 수 없다. 너무 젊은 나이 30대 중반 졸하시니 알 수 없다. 22세 별좌공(別坐公)위(韋)는 수성금화별좌(修城禁火別坐) 밖에는 모른다. 22세 송화공 인(勳)은 선공감감역(繕工監監役)을 하고 경명행수(經明行修) 의금부부도사(義禁府副都事) 송화원감(松禾縣監) 황해

감사(黃海監查)가 되었다. 후에 자손이 잘됨에 좌승지(左承旨)로 증(追贈)되었다.

22세 초루공(草樓公) 곽(轄)은 시에 능하며 석주공石洲公과 같이 인조반정후(仁祖反正後)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제수되고 도의문장(道義文章)으로 자연스럽게 선물이 되었는데 원고를 비축하지 않았고 5형제가 모두 시명이 있으니 형제의 시문집 연 주권이 있고 초루자집 있다. 문집에 있다. 당가오두(唐家五寶)에 비의 했다. 수는 70세이며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추증(追贈)되었다. 22세 睡龍公 翰와 22세 石洲公 韓은 특히 우애가 깊었으며 강산철현(江山七賢)·강산칠우(江山七友)·죽림칠현(竹林七賢)이라고 했다. 이 두 분의 경륜과 시문의 설명은 강의 자료에 조금이나마 기록을 하여 설명하고 오늘의 순례교육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다음 교육장에서 용강서원 참배를 하고 점심연회를 가졌다. 점심연회의 식단을 용강서원에서 제공하여 서원원장님의 배려가 되었다. 서로의 인사와 대화가 많이 이루어져 차후 유림과 창수공 문중의 연계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성균관 편의 권정택>

부정공파 대구돈목회 제56차 정총

새 회장에 권순룡씨 선출

지난 5월11일 오전 11시, 대구시 약전골목 '이정회관'에서 파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차 정기총

회를 개최했다. 권완오총무의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권오찬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권기갑교문의 축사가 있었다.

권원빈감사의 감사보고와 총무의 경과·결산보고 후 임원선출에 들어가 새 회장에 권순룡씨가 선출되어 선임 인사가 있었으며 기타 토의로 회의를 마치고 오찬을 하면서 족친 간의 족의를 두텁게 했다. <권혁세 기자>

한눈에 보는 우리의 선조 안동권씨 세계도(世系圖)

처음으로 출간한 안동권씨 세계도는 시조부터 18세까지 모두 수록하고, 19세 이하 행 2품직과 부조지전, 정려, 서원배향, 사당에 모신 선조님을 일목 요연하게 볼 수 있는 보도(譜圖)로 도식화하고 파조향사, 정승판서, 권문의 상경신, 향렬표 등 수록 능동재사, 시조향사 등 사진 11매 갈라실사출력

규격 : 가로 200cm 세로 67cm 정가 3만원(보관통, 우편료 포함)
연락처: (02)2695-2483/4 Fax: (02)2695-2485

안동권씨대종원